

역사

미 8군은 1944년 6월 10일 미국 테네시 주 멤피스에서 공식 창설되었습니다. 창설 직후 남서태평양 지역에 전개된 미 8군은 로버트 아이첼버거 중장의 지휘 아래 뉴기니 섬과 뉴 브리튼 섬에 잔존하는 적의 최후 저항 세력을 체계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1944년 12월 26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8군은 태평양 내 최대 규모 연합전장전역인 필리핀을 재탈환하는 데에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8군 주도의 5차례에 걸친 "빅터(Victor)" 작전을 통해 국토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필리핀 군도 중남부 지역이 해방되었습니다. 1945년 2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8군 부대들(중대 규모 팀-사단 급 TF)은 약 14회의 주요 강습상륙작전과 24회의 소규모 상륙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44일간 평균 1.5일 당 1회의 강습 상륙을 실시한 셈입니다. 8군은 그 결과 세계 2차 대전 기간 동안 약 60회 이상의 강습상륙작전에 참여한 것을 빗대어 이르는 "상륙 8군(Amphibious Eighth)"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여전히 전투를 진행 중인 동시에, 8군은 일본 침략을 목표로 한 다운폴 작전(Operation Downfall)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갑작스런 항복으로 인해 8군 임무가 침략에서 점령 임무로 전환되면서, "상륙 8군"인 8군이 미 육군의 일본 점령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12월 31일 미 6군의 일본 점령 임무가 해제되었고, 8군이 군축, 비무장화, 민주화에 이르는 과업을 포괄하는 확장된 점령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상기 임무는 8군의 작전적 수준에서 완벽히 수행되었고, 일본의 군사 점령은 일본의 경제 회복과 정치 민주화를 불러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8군은 또 다른 주요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초기 6주간 지속된 전술적 상황으로 인해 한미 지상군은 병력 절약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상의 상황에서 시행하기에도 본질적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것이기에, 한국 전쟁 초기 단계에서는 한미 노력의 대부분이 후퇴와 지연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을 벌 수 있는 여력을 소진함에 따라 윌튼 워커 중장 (미 8군 사령관)은 사령부를 낙동강 이남으로 후퇴시키고 지역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방어 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1950년 8월 1일, ("부산 교두보"로 언론이 명명한)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되었습니다. 부산 교두보의 성공적 방어는 한국 전쟁의 향배를 좌우하는 결정적 순간이었으며, 유엔이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에 시행된 인천 상륙작전과 더불어 부산 교두보 전투가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북한 조선인민군 전체가 붕괴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선인민군은 격퇴되었고 북한군 전력만으로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북한에 더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1950년 10월 1일 8군은 38선에 도달하였고, 10월 9일 미 제 1기병사단과 한 제 1사단을 선봉으로 하여

38 선을 넘어 북진하였습니다. 10 월 19 일 한미 양국의 두 사단은 북한의 수도 평양을 포위하였고, 1950 년 11 월 24 일 8 군은 종전 공세를 시작하였습니다. 최종 승리가 임박한 듯 보였으나 상황은 예상치 못하게 악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1 월 25 일 중화인민지원군의 대대적인 개입으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고 (당시 각자 개별적으로 작전 수행중이던) 8 군과 10 군단은 방어태세로 전환했습니다. 기습과 수적인 우세로 중공군은 수차례에 걸쳐 통합 공격을 실시하여 북한에서 우군을 격퇴하고, 1951 년 1 월 4 일, 6 개월만에 서울의 주인이 세번째로 바뀌게 됩니다. 8 군은 효과적인 방어선을 구축하지 못한채 275 마일을 철수했습니다. (이는 미군 역사상 최장거리를 철수한 것입니다.)

이후, 한국내 중공군이 수백만이라는 소문이 무성하였으며, 한반도 철수와 관련된 루머가 만연했습니다.

1951, 1 월 중순, 8 군(매튜 리지웨이 장군 지휘)은 제한된 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에서 연이어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측면 경계에 중점을 둔 이들 작전은 지역이 아닌 전력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점령은 교전 및 적군 격멸로 이어졌습니다. 1951 년 3 월 15 일, 서울은 네번째로 탈환되었고, 전쟁 중 마지막 수복이 되었습니다. 3 월 말, 8 군은 38 선에 도달하였으며, 3 주 후, 20 마일 앞에(주 저항선 앞 대부분 지역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1951 년 봄, 양측 모두 전투의 범위나 규모가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고, 일방의 군사적 승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서울 탈환을 위한 최후의 대규모 공세를 결심했습니다. 일단 서울 탈환한 후, 휴전을 지지하려고 했습니다. 남측의 수도를 확보하면 정전 협정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위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공군 제 5 차 공세(1951 년 4 월 22 일 - 7 월 8 일)는 한국전쟁당시 최대 규모의 지상 작전이었습니다. 두단계 전역 간, 중화인민지원군은 주요 목표 달성에 참담하게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1951 년 여름이 되자, 지상전은 지연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이 협상을 개시하여 고착된 군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해 보였습니다.

한국전쟁 휴전 회담은 1951 년 7 월 10 일에 개시되어, 복잡하고, 장황하고, 짜증스러운 논의 끝에 1953 년 7 월 27 일 마침내 체결되었고 이로써 한반도 내 전면전은 공식 중단되었습니다. 휴전이 되자, 8 군은 전후 복구를 위해 한국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한국 공동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북한이 한반도 무력 통일 의지를 굽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무 달성 강화 및 지속을 위해, 8 군은 창설 이후 전투 편성을 수차례 개편했습니다. 2 차 대전 당시, 8 군은 야전군으로서, 태평양 작전전구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2 차 대전 직후, 8 군은 일본에서

점령군으로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8 군은 야전군 및 전구 육군 역할을 수행했고 냉전 기간 동안 주로 전구 육군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1954년 11월 20일, 8 군은 역내 주요 육군사령부로서 미국극동육군에 통합되었습니다. 1957년 7월 1일, 미국극동육군은 주한미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 군은 주한미군 및 서울에 본부를 둔 유엔군 사령부로 통합되었습니다. 새 사령부 본부는 조지 데커 장군이 지휘하였습니다.

1978년 11월 7일, 존 베시 장군이 유엔사령부 및 주한미군, 8 군 사령관을 역임함과 동시에 새로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12월 1일, 8 군은 3성 장군 조직으로 복귀하고 유엔사/주한미군사/연합사와 분리되었습니다. 1998년 3월 13일, 8 군은 주한미군 육군구성군사령부로 지정되었다가 2012년 1월 23일, 작전급 야전군 본부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현재 8 군 사령부는 조만간 본부를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다른 주요 변혁의 최종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체계가 확보되어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영속적인 평화가 보장될 때까지, 8 군 임무는 변함 없습니다. : 한국에 대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적대 행위를 방지한다. 억제 실패시, 한국에 대한 외부 위협을 격퇴한다.